

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		보 도 자 료 12월 15일(수) 행사시작(10:00) 이후 보도		
배 포 일		2021. 12. 14. / (총 7매)		
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	단 장	손 호 준	전 화	044-202-3030
	담 당	유 시 영		044-202-3034
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	실 장	정 현 진	전 화	033-736-2821
	센터장	유 애 정		033-736-2851
	담 당	최 재 우		033-736-2855

“지역사회 통합돌봄, 미래를 논하다”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과 공유와 발전방향 모색

- 「2021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학술토론회(심포지엄)」 개최 (12.15, 코엑스) -

- ❖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 중인 지자체 모범 정책 사례 공유
- ❖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과 공유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
지자체-전문가 토론을 통한 돌봄 정책 확산 필요성 공론화
- 주제 토론: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성과와 과제, 전국민 돌봄보장
정책 확산 방안

□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와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김용익)은 12월 15일(수)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“지역사회 통합돌봄, 미래를 논하다”라는 주제로 「2021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학술토론회(이하 심포지엄)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* (주최) 보건복지부 (주관) 국민건강보험공단

(후원) 부산 진구, 부산 북구, 대구 남구, 광주 서구, 부천시, 안산시, 남양주시, 화성시, 진천군, 천안시, 청양군, 전주시, 순천시, 김해시, 제주시, 서귀포시

□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‘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*’을 추진하고 있다.

*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맞는 돌봄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사업, 2019년 6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중

○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복지 체계(패러다임)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지역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○ 이날 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,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.

※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, 온라인 생중계 방송 동시 진행(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<https://youtu.be/K7igLMMFKvU>)

□ 오전에는 선도사업 지자체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.

* (노인) 부천시, 천안시, 남양주시, 안산시, 진천군, 청양군
(장애인) 대구 남구, 제주시 (정신질환자) 화성시

○ 사례발표에서 각 지자체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현황 중 특색 있는 우수사례와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.

□ 오후에는 기조 강연과 주제발표,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.

○ 기조 강연은 다나카 시게루 일본 사회보장심의회 회장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되었다.

○ 첫 번째 주제발표는 정현진 건강보험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이 ‘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성과와 과제’를 주제로, 현재까지의 선도사업 추진현황과 대상자 특성 및 성과를 제시하였다.

- 두 번째 주제발표는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가 ‘전 국민 돌봄보장정책 제도화 방안’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내 보건과 복지 체계 연계 방안과 전 국민 돌봄보장정책 확산 방안을 제안하였다.
- 이어서 관련 협회 및 학계, 선도사업 지자체 현장 전문가의 **종합토론**이 이어졌다. <붙임 1 참고>
-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“지역과 주민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 공직자 및 현장 전문가들이 통합돌봄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었다.”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.
- 또한, “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, 그간 지역사회의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겠다.”라고 밝혔다.
-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“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.”라고 전했다.
-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집중관리 대상자 설정 등 구체적 모형을 개발하고 제도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.

- < 붙임 > 1. 2021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심포지엄 개요
2.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요
3.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성과

붙임 1

2021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심포지엄 개요

시 간	내 용
9:00~9:50 (50분)	등 록
10:00~12:00 (120분)	■ 선도사업 지자체 사례발표 - (노인) 부천시, 천안시, 남양주시, 안산시, 진천군, 청양군 - (장애인) 대구 남구, 제주시 - (정신질환) 화성시
12:00~13:30(90분)	점심시간
13:30~14:00 (30분)	■ 국민의례 ■ 개회사 -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■ 환영사 -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14:00~15:00 (60분)	■ 기조강연 : 일본 지역포괄케어 추진 20년, 한국에의 시사점 - 강사 : 다나카 시게루 (일본 사회보장심의회 회장) * 한·일 동시통역 진행
15:00~16:00 (60분)	■ 주제발제 - 발제1: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성과와 과제 정현진 (건강보험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) - 발제2: 전국민 돌봄보장정책 제도화 방안 변재관 (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)
16:00~16:20(20분)	휴 식
16:20~17:50 (90분)	좌장 : 홍선미 통합돌봄 전문위원회 위원장 ■ 종합토론 - 김호중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- 장숙량 대한간호협회 지역사회간호정책위원 - 이은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위원 - 윤종성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돌봄과장 - 김광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병내과 교수 -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-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■ 질의응답
17:50~18:00	폐 회

붙임 2

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요

□ (개념)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'병원·시설'이 아닌 '살던 곳'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, 보건의료, 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·제공하는 정책

□ (대상자) 노령,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서, 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

※ 예시 : ①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환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중 지역사회 복귀희망자, ②현재 재가 거주 중이나 예방적 선제개입이 필요한 자

□ (핵심서비스) △주거지원, △방문형 보건의료·건강, △방문요양, △일상생활지원 등으로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기반 마련

○ (주거지원) 주택과 돌봄서비스가 연계된 지원주택(supportive housing)을 확충하고, 영구임대주택을 서비스 결합형 무장애 주택으로 탈바꿈

-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(집수리 등)을 통해 지역사회 정주 유도

○ (보건의료·건강) 방문형 진료·간호·재활·복약지도 서비스 확충, 정보통신기술(AI, IoT 등)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등 추진

○ (기타) 주·야간 보호, 이동지원, 영양지원 등 서비스 확충

□ (주요 추진경과) 국정과제 실천과제* 반영('19.2월), 16개 지자체 선도사업('19.6월~),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안 발의('20.11월, '21.7월)**

* (43-6)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'지역사회 통합돌봄' 도입

**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안('20.11월),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안('21.7월)

붙임 3

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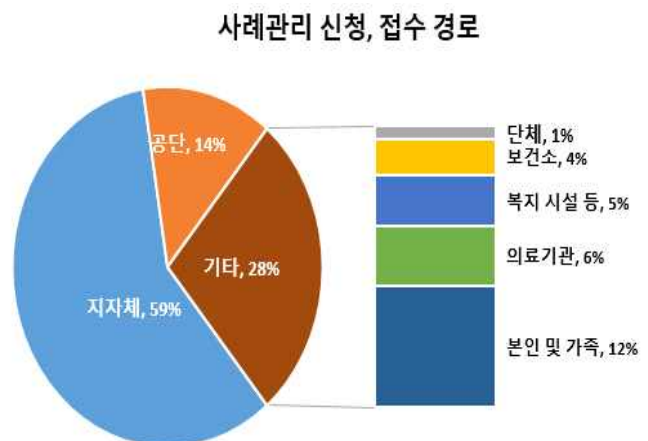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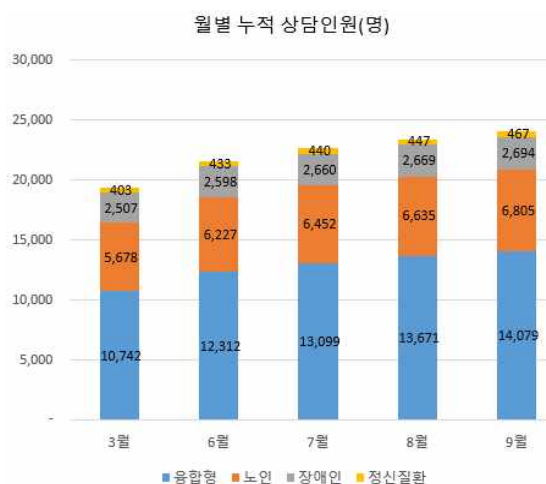
1. 선도사업 추진기반

- (추진체계) 16개 모든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전담부서(15개 시군구 본청, 화성시 보건소) 설치 및 담당인력 배치(총괄팀 평균 인력 5.5명)
- (지역케어회의) 보건-복지-주거 등 다분야 관계자가 협력해 수요자 중심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케어회의를 총 17,932회* 운영

* 난이도에 따라 1~3단계로 구분되며, 복합욕구자를 위한 3단계 회의는 196회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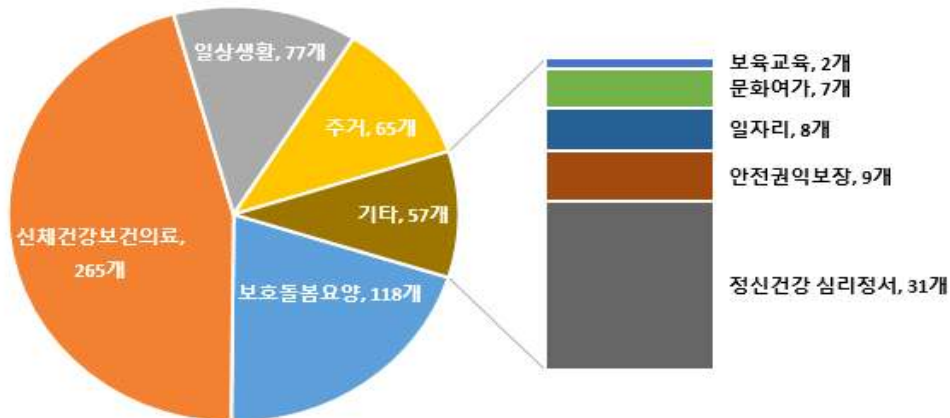
2. 서비스 제공 실적

- (지원대상자) '21.8월 기준 총 23,422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·상담 후 21,585명(92.2%)에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
 - 지원대상자 신청·접수 경로는 지자체·건보공단 자체 발굴 72.2%, 본인·가족의 직접 신청이 12.1%를 차지



- (서비스 제공) 주거, 보건의료, 일상생활지원, 요양 등 총 582개 서비스(지자체당 평균 36.4개)를 연계 및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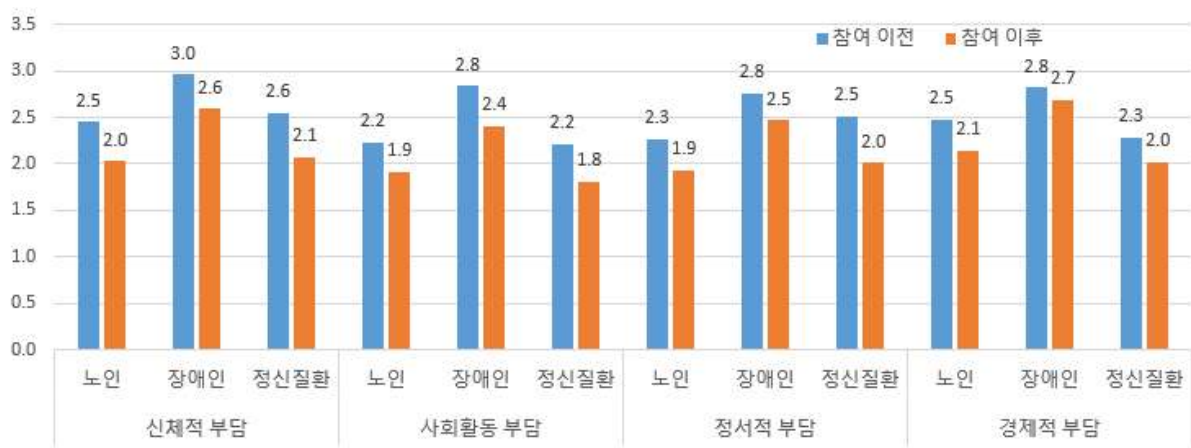
선도사업지역의 서비스 현황



3. 선도사업 추진 결과

- (서비스 만족도) 선도사업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노인 85점, 정신질환자 83점, 장애인 72점으로 확인
 - 특히,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
- (보호자의 부양부담) 보호자의 부양부담은 대체적으로 감소하여, 노인 2.4→2.0점, 장애인 2.9→2.5점, 정신질환자 2.4→2.0점으로 확인

※ 4점 척도로서, 매우 부담(4점), 전혀 부담없음(1점)



- (기타)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* 및 사회적 안정감** 제고 등 확인

* (노인) : 4.59점 → 5.11점, (장애인) 3.11점 → 3.25점 / 10점 척도

** 위기 발생 시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수 1.19명 → 1.37명